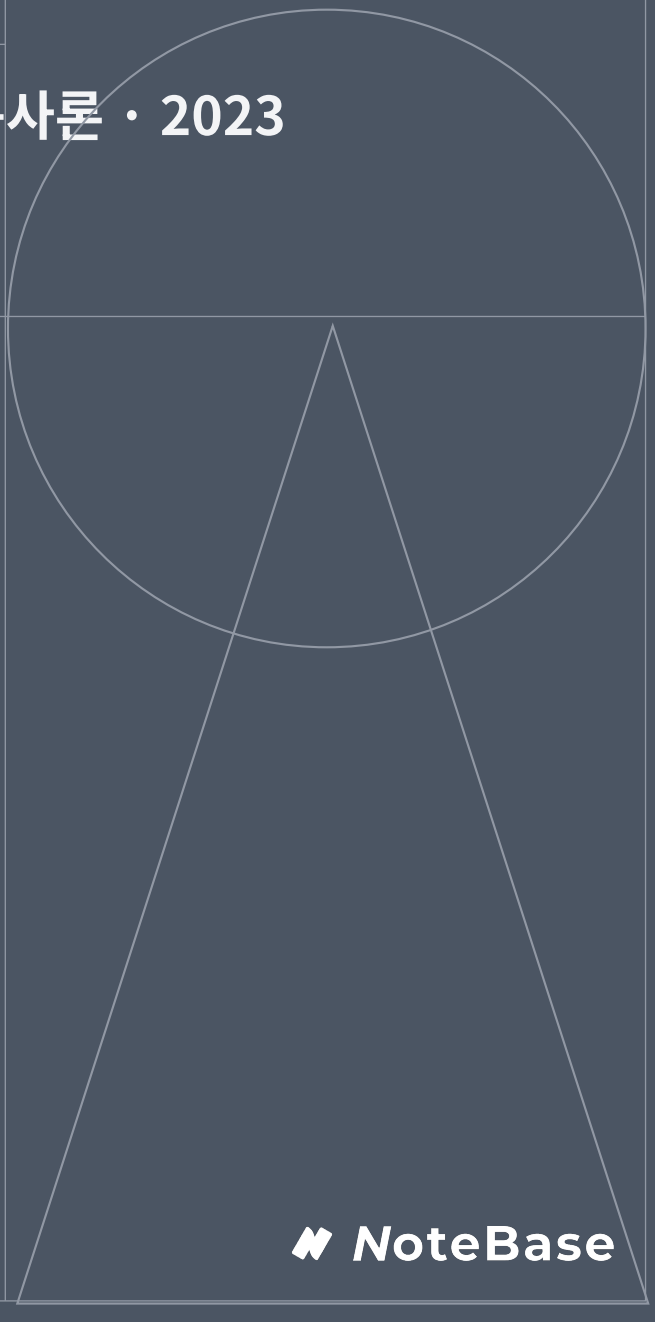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3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3

1. 정보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지는 문헌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편집해 놓은 리스트이다.
   ② 학술잡지는 대표적인 1차 자료로서 특정 주제 분야의 학술논문을 수록하는 정기간행물이다.
   ③ 출판 전 배포 기사는 학술잡지에 투고하기 위해 쓴 원고를 복사한 것으로 투고 전에 혹은 투고 후에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비공식적으로 배포된다.
   ④ 표준은 국가 표준, 지역 표준, 국제 표준 등이 있으며 국제기관으로는 ISO, IEC, NTIS 등이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지·학술잡지·출판 전 배포 기사와 표준의 성격을 구별하고, 국제표준화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지는 문헌에 관한 기본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록이다.
학술잡지는 특정 학문 분야의 연구논문을 정기적으로 수록하는 대표적인 1차 정보원이다.
출판 전 배포 기사는 정식 출판 전에 원고를 비공식적으로 유통하여 연구 성과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자료이다.
표준은 적용 범위에 따라 국가 표준·지역 표준·국제 표준 등으로 나뉘며, ISO와 IEC는 국제표준화기관이다.
반면 NTIS는 국가 연구개발 정보를 연계·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이지 국제표준화기관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서지는 문헌의 서명, 저자, 출판사항 등 기본적인 서지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편집한 목록이므로 옳다.
② O — 학술잡지는 특정 주제나 학문 분야의 연구논문을 정기적으로 수록하는 간행물이며, 연구 성과를 직접 전달하므로 대표적인 1차 자료에 해당한다.
③ O — 출판 전 배포 기사는 학술잡지에 투고하기 위해 작성한 원고의 복사본 등을 정식 출판 전에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비공식적으로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옳다.
④ X — 틀린 표현은 '국제기관으로는 ISO, IEC, NTIS 등이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ISO와 IEC가 국제표준화기관이며, NTIS는 국가 연구개발 정보를 연계·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이므로 국제표준화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④는 ISO·IEC처럼 영문 약칭인 NTIS를 같은 종류의 국제기관으로 묶은 것이 함정이다. 약칭의 형태가 아니라 각 기관·서비스의 기능을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보원 문항은 자료의 생산·유통 방식으로 판단하고, 표준 관련 문항은 표준의 적용 범위와 기관의 실제 기능을 구분한다.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인지, 국가 연구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ISO·IEC는 국제표준화기관, NTIS는 국가 연구개발 정보서비스이다.

NoteBase

2. 색인 및 검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념의 조합 수준이 높아질수록 색인 어휘는 증가하지만 한 색인표목 아래 색인되는 문헌의 수는 감소한다. 이것은 재현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② 역할기호란 한 문헌 내에서 주요 개념이 어떤 역할 또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장치이다. 이것은 정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③ 동일한 개념을 하나의 어형으로 표현함으로써 동일한 개념을 취급한 문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어형을 통제한다. 이것은 재현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④ 하나의 색인 표목 아래 이 색인어와 동등관계나 계층관계는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어의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어들을 표시해 줌으로써 검색 시 관련 용어에 의한 탐색 확장을 도모한다. 이것은 재현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색인·검색 장치가 정확률과 재현율 중 어느 것을 높이는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확률은 검색된 문헌 가운데 적합 문헌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불필요한 문헌의 검색을 줄일수록 높아진다.
재현율은 전체 적합 문헌 가운데 실제로 검색된 문헌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동의어나 관련어를 활용하여 빠뜨리는 적합 문헌을 줄일수록 높아진다.
역할기호와 구체적인 색인어는 검색 의미를 좁혀 정확률을 높이고, 동의어 통제와 관련어 탐색은 검색 범위를 넓혀 재현율을 높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개념의 조합 수준이 높아지면 색인표목이 구체화되어 한 표목 아래 모이는 문헌 수가 줄어든다. 이는 검색 결과를 더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틀린 표현은 '재현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올바르게는 '정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② O — 역할기호는 한 문헌에서 주요 개념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기능을 표시하여 같은 용어가 쓰인 문헌 가운데 검색 의도에 맞는 문헌을 가려내므로 정확률을 높인다.
③ O — 동일한 개념의 여러 동의어를 하나의 우선형으로 통제하면 어느 동의어로 표현된 문헌도 함께 모아 검색할 수 있으므로 누락이 줄고 재현율이 높아진다.
④ O — 관련어 표시는 동등관계나 계층관계는 아니지만 연관된 다른 용어로 탐색을 확장하게 하므로 적합 문헌의 누락을 줄여 재현율을 높인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한 색인표목 아래 색인되는 문헌의 수는 감소한다'는 표현 때문에 검색 누락이 줄어드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 표목에 모이는 문헌이 줄어드는 것은 검색 범위를 좁혀 불필요한 문헌을 줄이는 효과이므로 재현율이 아니라 정확률과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용어를 구체화하거나 역할을 한정하여 검색 결과를 좁히면 정확률 향상으로 판단한다. 동의어·관련어를 연결하여 검색 범위를 넓히고 적합 문헌의 누락을 줄이면 재현율 향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구체화·역할 한정은 정확률, 동의어·관련어 확장은 재현율이다.

NoteBase

3. 다음 학술지 논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상용플랫폼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DBpia ② KCI
③ KISS ④ e-article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내 학술지 논문 서비스를 민간 사업자의 상용 원문 플랫폼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학술정보 서비스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용 학술지 논문 플랫폼: 민간 사업자가 학술지 원문을 구축하고 기관 구독이나 개별 구매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공공 학술정보 서비스: 공공기관이 학술지·논문의 서지 및 인용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정보 인프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DBpia·KISS·e-article은 민간 업체의 상용 플랫폼이고, KCI는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공공 학술정보 서비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DBpia는 누리미디어가 제공하는 민간 학술콘텐츠 플랫폼으로, 기관 구독이나 개별 이용 방식으로 학술지 원문을 제공하므로 상용 플랫폼에 해당한다.
② X — KCI를 상용 플랫폼으로 분류한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KCI는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며 국내 학술지의 서지·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학술정보 서비스이다.
③ O — KISS는 한국학술정보가 제공하는 국내 학술논문 원문 서비스이므로 상용 플랫폼에 해당한다.
④ O — e-article은 학술교육원이 제공하는 국내 학술지 원문 플랫폼이므로 상용 플랫폼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KCI에서도 논문을 검색하고 일부 원문에 접근할 수 있어 상용 원문 플랫폼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구분 기준은 검색 가능 여부가 아니라 운영 주체와 서비스 성격이며, KCI의 운영 주체는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플랫폼의 이름만 보지 않고 운영 주체를 확인한다. 민간 업체가 구독·판매 방식으로 원문을 유통하면 상용 플랫폼으로,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학술지 평가·서지·인용 정보를 제공하면 공공 학술정보 서비스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DBpia·KISS·e-article은 민간 상용 플랫폼, KCI는 한국연구재단의 공공 인용색인이다.

NoteBase

4. 자동색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Zipf의 법칙(R × F = C)은 어느 한 문헌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출현빈도순으로 배열하여 순위를 매기면 출현빈도와 순위를 곱한 값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② Luhn은 Zipf의 발상에 단어의 의미성을 결합하여 단어의 출현 빈도를 색인어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자동색인 기법의 기초 연구가 되었다.
   ③ Sparck Jones의 역문헌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단어빈도를 문헌빈도로 나누어 줌으로써 빈도 값을 표준화시킨 상대빈도로, 한 단어의 중요도는 그 단어가 출현하는 전체 문헌 수에 대해 비례한다고 보았다.
   ④ Salton 등이 제시한 단어의 문헌분리치(term discrimination value)는 특정 단어가 한 문헌 집단 내에서 상호 관련이 없는 문헌들을 분리시키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동색인의 주요 이론가와 대표 개념을 연결하고, 단어의 문헌빈도와 중요도 사이의 방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Zipf: 한 문헌에서 단어의 출현빈도 *F*와 빈도순위 *R*의 곱은 대체로 일정하다는 법칙을 제시하였다.
Luhn: 단어의 출현 빈도를 정보적 의미를 지닌 색인어를 고르는 기준으로 활용하여 통계적 자동색인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Sparck Jones: 역문헌빈도는 많은 문헌에 흔히 나오는 단어의 가중치를 낮추고 소수 문헌에 나오는 단어의 가중치를 높이는 개념이다.
Salton 등: 단어의 문헌분리치는 서로 관련이 없는 문헌들을 구별해 내는 단어의 능력을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Zipf의 법칙은 출현빈도순위 R과 출현빈도 F가 반비례하여 그 곱이 일정한 상수 C가 된다는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제시된 $R \times F = C$의 설명은 옳다.
② O — Luhn은 단어의 출현 빈도를 그 단어의 정보적 의미를 판정하고 색인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통계적 자동색인 기법의 기초가 된 접근이므로 옳다.
③ X — 틀린 부분은 '단어의 중요도는 그 단어가 출현하는 전체 문헌 수에 대해 비례한다'는 표현이다. 역문헌빈도는 전체 문헌 수 N에 대한 해당 단어의 문헌빈도 df의 역비를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log(N/df)$의 형태로 나타낸다. 따라서 단어가 출현하는 문헌 수가 많을수록 중요도는 낮아지고, 적을수록 중요도는 높아진다고 고쳐야 한다.
④ O — 문헌분리치는 특정 단어가 문헌집단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문헌들을 얼마나 잘 분리하는지를 측정하는 값이다. 제시된 설명은 그 개념과 일치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③은 '역문헌빈도'라는 명칭을 제시하면서도 마지막에 중요도가 문헌빈도에 비례한다고 방향을 뒤집었다. 역문헌빈도에서는 여러 문헌에 흔히 등장하는 단어일수록 변별력이 작아져 가중치가 낮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와 핵심어를 먼저 연결한 뒤 비례 방향을 확인한다. Zipf는 순위와 빈도의 곱, Luhn은 빈도에 의한 색인어 선정, Sparck Jones는 문헌빈도의 역수 관계, Salton은 문헌분리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Sparck Jones의 IDF는 희귀한 단어는 높게, 여러 문헌에 흔한 단어는 낮게 평가한다.

NoteBase

5. 독서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상독서치료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문제 또는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행동의 변화를 자극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② 독서치료는 독서 자료를 통해 개인의 자기 계발이나 정신적, 육체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도, 조언하는 전문적인 독서지도 방법이다.
③ 독서치료는 이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거나 특정 상황에 적합한 독서 자료를 선택하고자 할 때 이용자가 가장 유용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 및 지도해 주는 활동을 말한다.
④ 발전독서치료는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장, 자기 인식, 그리고 다양한 생활 무대와 연관된 역할을 발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데 사용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독서치료의 목적과 유형을 이해하고, 독서치료와 독자상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서치료: 독서 자료를 매개로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정서·행동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전문적 독서지도 방법이다.
임상독서치료: 정신질환이나 정신적·행동적 문제를 지닌 사람의 치료적 변화를 돕는다.
발전독서치료: 정상인을 대상으로 자기 인식, 개인적 성장, 생활 과제와 역할의 발달을 돕는다.
독자상담: 이용자의 관심 주제나 상황에 알맞은 독서 자료를 선택하도록 조언하고 안내하는 활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임상독서치료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적·행동적 문제를 지닌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고 행동의 변화를 이루도록 돕는 치료적 방법이므로 옳다.
② O — 독서치료는 독서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 계발을 촉진하거나 정신적·육체적 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주도록 지도·조언하는 전문적 독서지도 방법이므로 옳다.
③ X — 틀린 표현은 '독서치료'이다. 특정 주제를 탐구하거나 특정 상황에 적합한 자료를 찾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독서 자료를 선택하도록 조언·지도하는 활동은 독서치료가 아니라 독자상담이다.
④ O — 발전독서치료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장과 자기 인식을 촉진하고 다양한 생활 과제 및 역할을 발달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방법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에는 '조언 및 지도'라는 표현이 있어 독서치료처럼 보이지만, 판단 기준은 조언의 목적이다. 문제의 치료나 성장 촉진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적합한 자료의 선택을 돕는 것이므로 독자상담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서 자료를 통해 심리·행동의 변화나 성장·치료를 돕는다면 독서치료로, 관심 주제와 상황에 맞는 자료를 골라 주는 데 초점이 있다면 독자상담으로 판단한다. 독서치료 안에서는 문제를 지닌 사람의 치료가 중심이면 임상독서치료, 정상인의 성장과 발달이 중심이면 발전독서치료이다.

암기 포인트

치료·성장은 독서치료, 자료 선택은 독자상담이다. 임상은 문제 치료, 발전은 정상인의 성장이다.

NoteBase

6. 정보서비스 평가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례 연구는 비교적 소수의 대표성 있는 특정 사례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사물과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련성을 포착하는 조사 방법이다.
   ② 기준 조사법은 관찰자가 무엇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 평가 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 요소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③ 설문조사법은 미리 준비된 설문지를 조사 대상이 해답하고 기입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질문지법이라고도 한다.
   ④ 면담기법은 조사원이 해답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통하여 해답자로부터 조사 내용을 알아내는 방법의 하나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보서비스 평가에 쓰이는 사례 연구, 기준 조사법, 설문조사법, 면담기법의 정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례 연구는 소수의 대표성 있는 사례를 여러 방법과 기술로 종합 분석하여 대상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기준 조사법은 미리 마련된 기준이나 표준에 비추어 정보서비스의 운영 상태나 성과를 점검·평가하는 방법이다.
설문조사법은 표준화된 질문지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수집하는 방법이고, 면담기법은 조사원이 응답자와 직접 대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사례 연구는 비교적 소수의 대표성 있는 사례를 다양한 방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여 사물과 현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관련성을 파악하는 조사 방법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이를 '기준 조사법'이라고 한 부분이다. 관찰자가 무엇을 어떻게 관찰할지 평가 기준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관찰·기록하는 것은 구조화된 관찰법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기준 조사법은 미리 마련된 기준이나 표준과 실제 정보서비스의 상태·성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 미리 준비한 설문지에 조사 대상자가 응답하고 기입하게 하여 자료를 수집하므로 설문조사법의 설명에 해당하며, 질문지법이라고도 한다.
④ O — 조사원이 응답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대화를 통해 조사 내용을 알아내므로 면담기법의 설명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평가 기준을 미리 설정한다'는 표현만 보고 기준 조사법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볼지 정한 뒤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핵심 행위는 구조화된 관찰법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가방법은 자료를 얻는 행위로 구별한다. 소수 사례를 종합 분석하면 사례 연구, 표준과 실제 상태를 비교하면 기준 조사법, 질문지에 응답하면 설문조사법, 직접 대화하면 면담기법, 행동이나 현상을 직접 보고 기록하면 관찰법이다.

암기 포인트

사례 연구는 깊이 있는 종합 분석, 기준 조사법은 표준과의 비교, 설문은 질문지, 면담은 대화, 관찰은 직접 보고 기록하는 방법이다.

NoteBase

7. 참고 사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참고 사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해답 자원으로서 유용한 정보원을 선택하며, 이들을 분석, 평가하여 이용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 정보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② 참고 사서는 장서개발과 보존·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다양한 주제·언어·유형별로 개발 기준을 설정한다.
③ 콘텐츠관리자란 도서관이 소장한 정보자원 중 특정 자원을 디지털 정보로 만들고 이를 수요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서라고 말할 수 있다.
④ 정보중재자(information mediator)란 요구정보와 해답정보 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그 전달자로서 활동하는 사서를 말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참고사서의 핵심 업무와 장서개발 담당자·콘텐츠관리자·정보중재자의 역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참고사서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보원을 탐색·평가하여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사서이다.
장서개발 담당자는 장서의 선정·구성·보존·관리를 위한 정책과 우선순위를 정한다.
콘텐츠관리자는 소장 정보자원을 디지털 콘텐츠로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정보중재자는 이용자의 요구정보와 실제로 제공되는 해답정보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유용한 정보원을 선택·평가한 뒤 맞춤형 정보로 제공하는 것은 참고사서의 핵심 업무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참고사서가 장서개발과 보존·관리를 위한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주제·언어·유형별 개발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참고봉사의 중심 업무가 아니라 장서개발 담당자의 업무이다. 올바르게는 '장서개발 담당자는 장서개발과 보존·관리를 위한 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제·언어·자료 유형별 개발 기준을 설정한다'이다.
③ O — 도서관 소장 정보자원을 디지털 정보로 만들고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전문가는 콘텐츠관리자에 해당한다.
④ O — 요구정보와 해답정보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고 전달하는 사서를 정보중재자라고 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참고사서도 정보원을 선택한다는 점을 이용해 장서개발 업무와 참고봉사 업무를 섞어 놓았다. 참고사서의 선택은 특정 이용자의 질문에 답할 정보원을 고르는 것이고, 장서개발의 선택은 도서관 장서 전체의 구성 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용자의 질문·요구 분석과 해답 제공'이면 참고봉사, '장서 전체의 선정 기준·우선순위·보존 정책'이면 장서개발, '디지털 자원 구축과 이용 환경 조성'이면 콘텐츠관리, '요구정보와 해답정보의 간극 조정'이면 정보중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참고사서는 질문에 답하고, 장서개발 담당자는 장서의 기준을 세우며, 콘텐츠관리자는 디지털 이용 환경을 만들고, 정보중재자는 정보의 간극을 잇는다.

NoteBase

8. 다음 중 도서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스킴(scheme)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MARC ② MODS
③ TEI ④ ONIX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도서관 및 디지털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스킴과 출판·도서 유통 분야의 메타데이터 표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ARC는 도서관의 서지·목록 정보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형식이다. MODS는 서지 정보를 XML로 기술하는 스킴으로 도서관·디지털 도서관 환경에서 활용된다. TEI는 문학·인문학 등의 전자 텍스트 구조를 부호화하는 지침으로 디지털 도서관의 원문 구축에 적용할 수 있다. ONIX는 출판사와 서점 등 도서 산업의 공급망에서 상품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MARC는 도서관의 서지 레코드 작성과 교환에 널리 쓰이는 기계가독목록 형식이므로 도서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② O — MODS는 서지 요소를 XML로 표현하며 도서관의 서지정보 기술과 디지털 자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O — TEI는 전자 텍스트의 논리적·구조적 요소를 부호화하므로 디지털 도서관의 원문 자료 구축과 표현에 적용할 수 있다.
④ X — ONIX를 도서관 분야의 대표적인 메타데이터 스킴으로 분류한 점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ONIX는 출판·도서 유통 분야에서 신간 정보, 가격, 공급 상태 같은 도서 상품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이다.

오답 포인트

ONIX도 책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다루므로 MARC나 MODS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자료의 서지·목록 관리가 중심인 MARC·MODS와 달리, ONIX는 출판과 판매를 위한 도서 상품 정보의 유통이 중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스킴이 다루는 대상만 보지 않고 주된 사용 주체와 목적을 확인한다. 도서관의 목록·서지정보는 MARC와 MODS, 디지털 원문 부호화는 TEI, 출판사·서점 사이의 도서 상품 정보 교환은 ONIX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MARC·MODS는 서지, TEI는 전자 텍스트, ONIX는 출판·유통 상품 정보이다.

NoteBase

9. 이용자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용자교육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정보원으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을 인식시키고, 학습과 연구를 위해 도서관의 시설과 설비, 자료,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조직적인 활동이다.

② 강의 형식의 이용자교육은 클래스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 이 형식은 모든 수준의 도서관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응용되며,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③ 견학 형식의 이용자교육은 생애교육의 지원에 두고, 이를 위해 이용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④ 서지교육은 이용자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룹 단위로 교육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보서비스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용자교육의 의미와 강의·견학·서지교육 형식의 목적 및 운영 방식이 서로 맞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이용자교육은 이용자가 도서관의 기능과 자원을 이해하고 시설·자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다.

강의 형식은 다수의 이용자에게 교실 수업처럼 설명하는 집단교육이고, 견학 형식은 도서관의 공간·시설·자료 배치와 서비스를 직접 둘러보며 기본 이용법을 익히게 하는 교육이다. 서지교육은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탐색·평가·활용하여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이용자교육은 도서관을 정보원으로 인식시키고, 학습과 연구에 필요한 시설·설비·자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조직적 활동이라는 설명이 맞다.
② O — 강의 형식은 교실 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집단교육이며, 여러 수준의 도서관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 맞다.
③ X — 틀린 표현은 '견학 형식'과 그 목표를 '생애교육의 지원 및 이용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교육'으로 연결한 부분이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정보 문제 해결 능력의 배양은 서지교육의 목표에 가깝다. 견학 형식은 도서관의 공간, 시설, 자료 배치와 서비스 현장을 직접 둘러보게 하여 도서관에 친숙해지고 기본 이용법을 익히도록 하는 방식이다.
④ O — 서지교육은 이용자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정보서비스이며, 집단 단위로 실시될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이용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바람직한 교육 목표를 제시하여 옳아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문제는 목표 자체가 아니라 그 목표를 '견학 형식'에 연결한 데 있다. 견학은 현장 안내와 기본 이용법 습득에 초점이 있고, 자립적인 정보 탐색과 문제 해결 능력은 서지교육의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육 형식의 명칭보다 행동과 목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직접 둘러보고 위치·시설·서비스를 익힌다'면 견학, '교실 수업처럼 다수에게 설명한다'면 강의,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서지교육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견학은 도서관 현장과 기본 이용법, 강의는 집단 설명, 서지교육은 자립적인 정보 탐색과 문제 해결이다.

NoteBase

10. 빅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양성(variety)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정형화의 종류에 따라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속도(velocity)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속성이다.
③ 크기(volume)는 단순 저장되는 물리적 데이터양을 나타내며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 생성되고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임을 의미한다.
④ 디지털(digital)은 관리된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빅데이터의 대표적 특성인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크기(volume)의 뜻을 구별하고, 단순한 디지털 데이터의 설명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다양성(variety)은 데이터의 형식과 종류가 다양하다는 특성이다. 정형·반정형·비정형 데이터가 함께 존재한다.
속도(velocity)는 데이터가 빠르게 생성·수집되고 처리·분석되는 특성이다.
크기(volume)는 여러 경로에서 지속적으로 생성·축적되는 데이터의 방대한 양을 뜻한다.
디지털(digital)은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표현·저장하는 방식을 가리킬 뿐,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3V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다양성은 여러 종류와 형식의 데이터가 공존하는 특성이다. 데이터는 정형화 정도에 따라 정형·반정형·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O — 속도는 대량의 데이터가 빠르게 생성·수집되고 처리·분석되는 특성을 뜻하므로 옳다.
③ O — 크기는 여러 경로에서 계속 생성되고 저장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양을 뜻하므로 옳다.
④ X — 틀린 표현은 '디지털(digital)'을 빅데이터의 특성처럼 제시한 부분이다. 제시된 내용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고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관한 일반적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빅데이터의 대표적 특성을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크기(volume)로 설명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빅데이터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활용된다는 사실 때문에 ④의 '디지털'도 빅데이터의 핵심 특성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장 형식이 디지털이라는 것과 빅데이터를 규정하는 3V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영문 첫 글자를 확인해 V로 시작하는 volume·velocity·variety인지 판단한다. 데이터의 양은 volume, 생성·처리의 빠르기는 velocity, 형식과 종류의 다양함은 variety에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빅데이터 3V는 양(volume)·속도(velocity)·다양성(variety)이다. 디지털(digital)은 3V가 아니다.

NoteBase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네트워크, 센서, 플랫폼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로, 도서관을 구성하는 물리적 객체들에 센서와 태그들을 부착하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① 클라우드 컴퓨팅 ② 사물인터넷
③ 인공지능 ④ 비콘 서비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네트워크·센서·플랫폼을 바탕으로 물리적 사물에 센서와 태그를 부착하여 연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사물인터넷임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물인터넷(IoT)은 센서나 태그가 부착된 각종 사물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교환하고 이를 플랫폼에서 처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핵심 키워드는 '사물 + 센서·태그 + 네트워크 + 플랫폼'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저장공간·응용 프로그램 등의 컴퓨팅 자원을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방식이고, 인공지능은 학습·추론·판단 등 지능적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기술이다. 비콘 서비스는 근거리 무선 신호를 이용해 위치 기반 정보나 알림을 제공하는 제한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클라우드 컴퓨팅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저장공간·응용 프로그램 등의 공유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물리적 객체에 센서와 태그를 부착하여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설명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본 부분이 틀렸으며, 올바른 개념은 사물인터넷이다.
② O — 사물인터넷은 물리적 사물에 센서와 태그를 부착하고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제시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판단하는 등 지능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센서와 태그가 부착된 물리적 객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술'이라는 설명을 인공지능으로 본 부분이 틀렸으며, 올바른 개념은 사물인터넷이다.
④ X — 비콘 서비스는 비콘이 보내는 근거리 무선 신호를 주변 기기가 감지하여 위치 기반 정보나 알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네트워크·센서·플랫폼을 핵심 요소로 여러 물리적 객체를 연결하는 포괄적 기술'이라는 설명을 비콘 서비스로 본 부분이 틀렸으며, 올바른 개념은 사물인터넷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사물인터넷이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인공지능 분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①이나 ③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의 직접적인 판별어는 '물리적 객체', '센서와 태그 부착', '네트워크 연결'이며, 이는 사물인터넷의 구성 방식이다. 비콘은 이런 환경에서 쓰일 수 있는 특정 근거리 통신 장치·서비스일 뿐 제시문 전체를 가리키는 포괄 개념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물에 센서·태그를 붙여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설명이면 사물인터넷으로 판단한다. 서버·저장공간 등 자원의 원격 제공은 클라우드 컴퓨팅, 학습·추론·판단은 인공지능, 근거리 신호에 따른 위치 기반 알림은 비콘 서비스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사물인터넷 = 사물에 센서·태그를 붙이고 네트워크와 플랫폼으로 연결한다.

NoteBase

12.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있다.
② 오픈 사이언스란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누구나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③ 오픈 액세스(open access)는 누구나 장벽 없이 학술정보에 접속해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모든 이용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④ 오픈 데이터(open data)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재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오픈 사이언스,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의 뜻을 구분하고 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체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오픈 사이언스: 연구 과정과 연구 성과를 가능한 한 개방하여 누구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연구 방식이다.
오픈 액세스: 학술정보를 경제적·법적·기술적 장벽 없이 온라인으로 읽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방 방식이다.
오픈 데이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재사용·재배포할 수 있도록 개방된 데이터이다.
공공데이터포털: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이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공공데이터포털이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라는 설명은 맞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② O — 오픈 사이언스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성과를 폭넓게 개방하여 누구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방법을 의미한다.
③ O — 오픈 액세스는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어 누구나 읽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모든 이용자의 학술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부합한다.
④ O — 오픈 데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재사용하며 재배포할 수 있도록 개방된 데이터를 뜻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공공데이터포털의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한 뒤 주관 부처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어 놓았다. 오픈 사이언스가 과학기술 분야의 개념이라는 점 때문에 포털의 주관 부처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오픈 사이언스를 상위의 포괄 개념으로 보고, 오픈 액세스는 학술정보의 접근 개방, 오픈 데이터는 데이터의 사용·재사용·재배포 허용으로 구분한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주관 부처를 묻는 표현이 나오면 행정안전부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오픈 사이언스는 연구 전반의 개방, 오픈 액세스는 학술정보 접근의 개방, 오픈 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의 개방, 공공데이터포털은 행정안전부이다.

NoteBase

13. 정보검색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확률 모델(probabilistic model)은 Maron과 Kuhns가 확률기반 색인과 검색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발표하면서부터 만든 정보검색모델이다.

② 불리언 모델(Boolean model)에서는 불리언 연산자를 사용하여 질의가 표현되고, 질의는 문헌의 본문 파일에서 추출한 색인파일의 색인어와 매칭을 시도한다.

③ 벡터공간 모델(vector space model)은 간략히 벡터 모델이라고 하며, Salton이 대수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만든 정보검색모델이다.

④ 불리언 모델은 논리대수를 전개한 George Boole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며, Luhn이 정보검색에 도입한 모델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확률 모델, 불리언 모델, 벡터공간 모델의 이론적 기반과 주요 연구자를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률 모델: 문헌이 질의에 적합할 확률을 추정하여 검색 결과를 순위화하는 모델이다. Maron과 Kuhns의 확률 기반 색인·검색 연구가 그 출발점으로 제시된다.
불리언 모델: 문헌과 질의를 집합으로 보고 AND, OR, NOT 같은 불리언 연산자로 정확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이다. George Boole의 논리대수를 이론적 토대로 한다.
벡터공간 모델: 문헌과 질의를 용어 가중치 벡터로 나타내고 두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검색 결과를 순위화하는 모델이다. Salton의 연구와 관련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확률 모델은 Maron과 Kuhns가 수행한 확률 기반 색인 및 검색 연구에서 출발한 정보검색 모델이라는 설명이 타당하다.
② O — 불리언 모델은 질의를 불리언 연산자로 표현하고, 질의 조건과 문헌의 색인어가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검색한다.
③ O — 벡터공간 모델은 문헌과 질의를 벡터로 표현하는 대수적 모델이며, Salton이 발전시킨 대표적인 정보검색 모델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Luhn이 정보검색에 도입한 모델’이라는 표현이다. 불리언 모델은 George Boole의 논리대수를 토대로 AND, OR, NOT 연산을 이용해 질의와 문헌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이라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George Boole’이라는 맞는 설명 뒤에 ‘Luhn이 정보검색에 도입했다’는 잘못된 인물 연결을 붙인 선지이다. 모델의 이론적 기반과 정보검색 연구자의 업적을 한 문장 안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모델을 판단할 때는 먼저 작동 원리를 확인하고, 이어서 관련 인물을 연결한다. 확률 모델은 적합 확률과 Maron·Kuhns, 불리언 모델은 논리대수와 George Boole, 벡터공간 모델은 벡터 유사도와 Salton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확률은 Maron·Kuhns, 불리언은 Boole, 벡터는 Salton이다.

NoteBase

14. 다음 중 ISB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국별번호는 접두부가 978인 경우에는 11, 접두부가 979인 경우에는 89를 사용한다.
② 부가기호 제1단계 독자대상기호에서 숫자 '4'는 중·고등 학습 참고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에 부여한다.
③ 부가기호 제2단계 발행형태기호에서 숫자 '7'은 초등그림책과 만화책에 부여한다.
④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시청각자료와 마이크로형태자료는 ISBN 부여 대상자료에 포함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ISBN의 구성 요소와 부가기호 각 자리의 의미, ISBN 부여 대상 자료의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발문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잘못된 설명을 찾는다.

핵심 개념

ISBN은 출판물을 국제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표준번호이며, 접두부·등록자군 기호·발행자 기호·서명 식별기호·체크기호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등록자군 기호는 접두부 978에는 89, 접두부 979에는 11이 결합한다. 부가기호는 독자 대상, 발행 형태, 내용 분류를 나타내며, 인쇄도서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용 소프트웨어·시청각자료·마이크로형태자료도 ISBN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접두부가 978인 경우에는 11, 접두부가 979인 경우에는 89'라는 대응이 서로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접두부가 978인 경우 우리나라 등록자군 기호 89를, 접두부가 979인 경우 11을 사용한다.
② O — 부가기호 제1단계의 독자대상기호 4는 중·고등 학습참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등학생 대상 도서에 부여한다. 학습참고서는 별도의 독자대상 구분을 사용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③ O — 부가기호 제2단계의 발행형태기호 7은 초등그림책과 만화책을 나타내므로 옳다.
④ O — ISBN은 종이책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시청각자료 및 마이크로형태자료도 부여 대상 자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은 89와 11이라는 두 우리나라 등록자군 기호를 모두 제시하여 맞는 설명처럼 보이게 하지만, 각 기호에 결합하는 접두부를 반대로 배치하였다. 숫자의 존재 자체보다 '978-89, 979-11'의 결합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SBN 구성 문제에서는 먼저 접두부와 등록자군 기호를 한 묶음으로 확인하고, 부가기호 문제에서는 제1단계는 독자 대상, 제2단계는 발행 형태라는 기준으로 각 선지를 판별한다. 부여 대상은 매체가 종이인지보다 출판물로서 식별·유통되는 자료인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한국 ISBN의 앞부분은 ‘978-89, 979-11’로 묶어 기억한다. 부가기호는 ‘1단계 독자, 2단계 형태’이다.

NoteBase

15. 다음 중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사립장애인도서관들이 보유한 대체자료 목록 및 원본을 수집하여 장애인 이용자가 한번에 통합 검색, 다운로드, 열람할 수 있는 지식정보서비스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① DAISY
② DREAM
③ NTIS
④ KOLIS-NET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사립장애인도서관이 보유한 대체자료의 목록과 원문을 모아 장애인 이용자에게 통합 검색·다운로드·열람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REAM은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으로, 여러 도서관이 보유한 대체자료의 목록과 원문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DAISY는 대체자료 제작에 쓰이는 접근 가능한 디지털 자료 형식이며, NTIS는 국가 연구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정보 포털이고, KOLIS-NET은 전국 도서관의 서지·소장 정보를 모은 국가자료종합목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DAISY는 시각장애인 등 인쇄자료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접근 가능한 디지털 자료의 표준·형식이다. 틀린 표현은 '통합 검색 서비스를 DAISY라고 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대체자료의 형식 또는 제작 표준을 DAISY라고 한다'이다.
② O — DREAM은 전국 공공도서관과 사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목록 및 원문을 수집하여 장애인 이용자가 통합 검색, 다운로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이다.
③ X — NTIS는 국가 연구개발의 사업·과제·연구자·성과 등의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다. 틀린 표현은 '장애인용 대체자료 공유 서비스를 NTIS라고 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국가 연구개발 지식정보 포털을 NTIS라고 한다'이다.
④ X — KOLIS-NET은 전국 도서관의 서지 및 소장 정보를 공동 구축·활용하는 국가자료종합목록이다. 틀린 표현은 '장애인용 대체자료 원문 공유 서비스를 KOLIS-NET이라고 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전국 도서관의 서지·소장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KOLIS-NET이라고 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 DAISY도 장애인용 대체자료와 밀접하고 ④ KOLIS-NET도 전국 도서관의 자료를 통합한다는 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문장의 결정적 단서는 '대체자료 목록 및 원본', '장애인 이용자', '통합 검색·다운로드·열람'이며, 이 세 기능을 함께 가리키는 명칭은 DREAM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비스의 대상과 제공 기능을 먼저 짝지어 판단한다. 장애인 대상 대체자료의 목록·원문 공유는 DREAM, 접근 가능한 디지털 자료 형식은 DAISY, 국가 연구개발 정보는 NTIS, 전국 도서관의 서지·소장 정보는 KOLIS-NET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DREAM은 대체자료 공유, DAISY는 대체자료 형식, NTIS는 국가 연구개발 정보, KOLIS-NET은 전국 도서관 종합목록이다.

NoteBase

16. 다음 중 DIKW 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데이터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관찰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② 정보는 데이터가 조직화된 것으로, 수신자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다.
③ 지식은 데이터와 정보의 조합으로 전문가의 의견이나 기술, 경험이 추가되어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④ 지혜는 정보와 비교하여 더욱 구체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축적된 지식으로 특정 영역에서의 개념을 다른 상황이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DIKW 계층에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데이터: 가공·조직화되기 전의 객관적 사실이나 관찰값이다.
정보: 데이터를 목적과 맥락에 맞게 조직하여 수신자에게 의미와 가치를 갖게 한 것이다.
지식: 데이터와 정보를 경험·기술·전문적 판단과 결합하여 이해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통찰하고 판단하여 새로운 문제에 적절히 적용하는 고차원적 개념이다.
DIKW는 데이터 → 정보 → 지식 → 지혜로 올라갈수록 단순한 사실에서 맥락, 이해, 판단과 적용으로 발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데이터는 객관적 사실이나 관찰을 아직 조직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원자료를 의미하므로 옳다.
② O — 정보는 데이터를 조직하고 맥락을 부여하여 수신자에게 의미와 가치를 갖게 한 것이므로 옳다.
③ O — 지식은 데이터와 정보에 전문가의 의견, 기술, 경험 등을 결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옳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정보와 비교하여 더욱 구체적인 개념'이다. 지혜는 정보보다 더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 아니라 DIKW의 최상위에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통찰하고 판단하여 다른 상황이나 문제에 적용하는 더 고차원적·추상적인 개념이다. 올바르게는 '지혜는 정보와 비교하여 더욱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축적된 지식을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에 적용하게 해 주는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뒷부분인 '축적된 지식을 다른 상황이나 문제에 적용한다'는 지혜의 성격에 가깝지만, 앞부분에서 지혜를 정보보다 '더욱 구체적'이라고 한 표현이 틀렸다. 일부가 맞더라도 핵심 비교 표현이 틀리면 선지 전체는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공 전 사실은 데이터, 의미가 부여된 데이터는 정보, 경험과 전문성이 결합된 정보는 지식, 지식을 바탕으로 통찰·판단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지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데이터는 사실, 정보는 의미, 지식은 이해와 활용, 지혜는 판단과 적용이다.

NoteBase

17. 다음 중 JCR(Journal Citation Reports)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igenfactor
② Cited Half-Life
③ Impact Factor
④ SNIP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JCR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평가 지표와 Scopus 기반 지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JCR(Journal Citation Reports)은 인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술지의 영향력과 인용 특성을 보여 주는 학술지 평가 정보원이다. Impact Factor, Eigenfactor, Cited Half-Life 등은 JC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SNIP(Source Normalized Impact per Paper)은 학문 분야마다 다른 인용 관행을 보정하는 Scopus 기반의 저널 영향력 지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Eigenfactor는 학술지에 인용한 학술지의 영향력까지 반영하여 전체 인용 영향력을 평가하는 JCR 제공 지표이다.
② O — Cited Half-Life는 특정 학술지가 받은 인용의 절반이 최근 몇 년 동안 발행된 논문에서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JCR 제공 지표이다.
③ O — Impact Factor는 일정 기간의 인용 수를 해당 기간의 인용 가능 논문 수와 관련지어 학술지의 평균 인용 영향력을 나타내는 JCR의 대표 지표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JCR에서 제공하는 SNIP'이다. 올바르게는 SNIP은 JCR 지표가 아니라 Scopus의 인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야별 인용 관행의 차이를 보정한 저널 영향력 지표이다.

오답 포인트

SNIP도 학술지의 인용 영향력을 평가하므로 Impact Factor와 같은 JCR 지표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구분 기준은 지표의 기능이 아니라 제공 체계이며, SNIP은 Scopus 기반 지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술지 평가 지표의 제공처를 묻는 문제에서는 JCR 계열의 Impact Factor·Eigenfactor·Cited Half-Life와 Scopus 기반의 SNIP을 먼저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JCR은 Impact Factor·Eigenfactor·Cited Half-Life, Scopus 기반 지표는 SNIP이다.

NoteBase

18. 다음 중 쿨타우의 정보탐색과정(ISP) 모형에서 사람들이 불확실성, 의구심, 혼란과 같은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는 단계로 적절한 것은?
① 선택(selection)
② 탐색(exploration)
③ 형성(formulation)
④ 수집(collection)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쿨타우의 정보탐색과정(ISP)에서 각 단계와 그 단계에서 두드러지는 감정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쿨타우의 ISP 모형은 정보 탐색이 진행되면서 이용자의 감정·사고·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선택(selection)은 탐색할 주제를 고르는 단계로 낙관이 나타난다.
탐색(exploration)은 여러 정보를 접하면서 주제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 불확실성·의구심·혼란이 가장 두드러지는 단계이다.
형성(formulation)은 초점이 구체화되어 명료함이 생기는 단계이다.
수집(collection)은 분명해진 초점에 맞는 정보를 모으면서 방향감과 자신감이 높아지는 단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선택 단계에서는 주제를 정하면서 낙관을 느낀다. 틀린 표현은 '선택'이며, 제시된 불확실성·의구심·혼란과 연결되는 올바른 단계는 '탐색'이다.
② O — 탐색 단계에서는 여러 정보가 서로 맞지 않거나 탐색 방향이 아직 뚜렷하지 않아 불확실성·의구심·혼란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③ X — 형성 단계에서는 탐색의 초점이 구체화되면서 명료함이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형성'이며, 제시된 감정과 연결되는 올바른 단계는 '탐색'이다.
④ X — 수집 단계에서는 정해진 초점에 맞추어 정보를 모으므로 방향감과 자신감이 커진다. 틀린 표현은 '수집'이며, 제시된 감정과 연결되는 올바른 단계는 '탐색'이다.

오답 포인트

'불확실성'만 보고 탐색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문항은 불확실성뿐 아니라 의구심과 혼란이 함께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계를 묻고 있으므로 탐색 단계로 판단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정 키워드로 단계를 구분한다. 낙관은 선택, 불확실성·의구심·혼란은 탐색, 명료함은 형성, 방향감·자신감은 수집에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선택은 낙관, 탐색은 혼란, 형성은 명료, 수집은 자신감이다.

NoteBase

19. 다음 면담기법 중 언어적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이입
② 경청
③ 의사언어
④ 재진술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면담에서 말의 내용과 의미를 활용하는 언어적 기법과 목소리의 특성을 활용하는 비언어적 기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언어적 기법은 말의 내용과 의미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법이다. 감정이입, 경청, 재진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사언어는 음높이, 말의 속도, 음량, 억양, 말 사이의 멈춤처럼 말의 내용 밖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음성적 단서이므로 비언어적 기법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감정이입은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말로 전달하는 언어적 면담 기법이다.
② O —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며 반응하는 언어적 면담 기법이다.
③ X — 의사언어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음높이, 속도, 음량, 억양 등의 음성적 특성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언어적 기법'이라는 분류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비언어적 기법'이다.
④ O — 재진술은 상대방이 말한 핵심 내용을 다른 말로 되돌려 주어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언어적 면담 기법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의사언어'에 '언어'라는 말이 들어 있어 언어적 기법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의사언어는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목소리로 말했는지를 나타내므로 비언어적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말의 내용과 의미를 다루면 언어적 기법, 음높이·속도·음량·억양처럼 목소리의 형식을 다루면 의사언어에 해당하는 비언어적 기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감정이입·경청·재진술은 언어적 기법, 의사언어는 목소리의 특성을 통한 비언어적 기법이다.

NoteBase

20. 다음 중 물리학자들과 화학자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준화한 8가지 범주 '시작-연결-브라우징-차별화-주지-추출-검증-탐색종료' 등으로 구성하여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Ellis 모형
② Johnson 모형
③ Leckie 모형
④ Willson 모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보추구행태 모형의 학자와 대표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시작-연결-브라우징-차별화-주시-추출-검증-탐색종료'라는 8가지 행태가 Ellis 모형의 핵심 단서이다.

핵심 정리

Ellis 모형: 연구자의 실제 정보탐색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태를 시작, 연결, 브라우징, 차별화, 주시, 추출, 검증, 탐색종료의 범주로 제시한다.
Johnson 모형: 개인의 정보추구를 촉발하는 배경 요인과 정보원·매체 요인, 정보추구 행동의 관계를 설명한다.
Leckie 모형: 전문직 종사자의 업무 역할과 과업에서 정보요구가 생기고, 정보원에 대한 인식과 탐색 결과가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Wilson 모형: 정보요구가 정보추구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개인적·역할적·환경적 요인과 여러 개입 변수가 작용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제시된 8가지 행태는 Ellis가 물리학자와 화학자 등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여 정리한 범주이므로 Ellis 모형이 맞다.
② X — 틀린 부분은 'Johnson 모형'이다. Johnson 모형은 정보추구의 배경 요인과 정보원·매체 요인 및 정보추구 행동의 관계를 다루며, 제시된 8가지 행태는 'Ellis 모형'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Leckie 모형'이다. Leckie 모형은 전문직 종사자의 업무 역할·과업에서 정보요구가 발생하고 탐색 결과가 피드백되는 구조를 다루며, 제시된 8가지 행태는 'Ellis 모형'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Willson 모형'이다. 선지의 Willson은 일반적으로 Wilson으로 표기하며, Wilson 모형은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사이에 작용하는 개인적·역할적·환경적 요인 등을 설명한다. 제시된 8가지 행태의 올바른 명칭은 'Ellis 모형'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정보추구행태를 설명한 여러 학자의 이름을 한꺼번에 제시하여 혼동하게 하는 문항이다. 특히 '물리학자와 화학자'라는 조사 대상보다 시작·연결·브라우징으로 이어지는 행태 명칭을 Ellis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보다 모형의 대표 키워드를 먼저 찾는다. 시작, 연결, 브라우징, 차별화, 주시, 추출, 검증, 탐색종료가 열거되면 Ellis 모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Ellis = 연구자의 정보탐색을 8가지 행동 범주로 정리한 모형이다.

NoteBase

21. 다음 중 정보의 가공 정도에 따라 2차 정보원으로만 가장 올바르게 묶인 것은?
① 규격, 특허, 통계
② 특허, 교과서, 사전
③ 교과서, 사전, 비평서
④ 편람, 사전, 지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보가 원자료인지, 원자료를 해설·정리·평가하여 만든 가공 정보인지에 따라 1차 정보원과 2차 정보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차 정보원은 새로운 사실이나 데이터를 최초로 기록한 원자료이며, 규격·특허·통계·지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차 정보원은 1차 정보원의 내용을 해설·정리·종합·평가하여 이용하기 쉽게 만든 자료이며,
교과서·사전·편람·비평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결정적인 구분 기준은 원정보의 직접 기록인지, 기존 정보를 가공한 자료인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규격·특허·통계는 새로운 기술 내용이나 수치 자료를 직접 담은 1차 정보원이다. 틀린 표현은 이들을 2차 정보원으로 묶은 것이며, 올바르게는 '규격·특허·통계는 1차 정보원'이다.
② X — 교과서와 사전은 2차 정보원이지만 특허는 발명의 기술 내용을 최초로 공개하는 1차 정보원이다. 틀린 항목은 '특허'이며, 올바르게는 '교과서·사전은 2차 정보원이고 특허는 1차 정보원'이다.
③ O — 교과서는 기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전은 용어나 지식을 요약·해설하며, 비평서는 기존 저작이나 정보를 분석·평가한다. 세 자료 모두 기존 정보를 가공한 2차 정보원이다.
④ X — 편람과 사전은 2차 정보원이지만 지도는 지리 정보를 직접 표현한 1차 정보원이다. 틀린 항목은 '지도'이며, 올바르게는 '편람·사전은 2차 정보원이고 지도는 1차 정보원'이다.

오답 포인트

자료가 전문적이거나 정리된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2차 정보원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특히 ②의 '특허'와 ④의 '지도'는 완성된 자료처럼 보이지만, 각각 새로운 기술 내용과 지리 정보를 직접 담은 1차 정보원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자료가 사실·기술·수치를 최초로 직접 기록했으면 1차 정보원, 기존 자료를 설명·요약·종합·평가했으면 2차 정보원으로 판단한다. 묶음형 선지는 항목을 하나씩 분류하여 모두 같은 범주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규격·특허·통계·지도는 직접 기록한 1차, 교과서·사전·편람·비평서는 가공한 2차 정보원이다.

NoteBase

22. 다음 중 파파스(Pappas)와 테페(Tepe)가 개발한 Pathways to Knowledge모형의 단계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예비조사 - 감상 - 탐색 - 커뮤니케이션 - 해석- 평가
② 감상 - 예비조사 - 탐색 - 해석 - 커뮤니케이션 - 평가
③ 예비조사 - 탐색 - 감상 - 커뮤니케이션 - 해석-평가
④ 감상-탐색 - 예비조사 - 해석 - 커뮤니케이션 - 평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파파스(Pappas)와 테페(Tepe)의 Pathways to Knowledge 모형에서 정보 탐구가 진행되는 단계의 정확한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감상 — 관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주제나 아이디어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2. 예비조사 — 기존 지식과 배경 정보를 살펴 탐구 주제와 방향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3. 탐색 — 정해진 방향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찾는 단계이다.
4. 해석 — 수집한 정보를 분석·종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5. 커뮤니케이션 — 구성한 지식을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단계이다.
6. 평가 — 탐구 과정과 결과를 되돌아보고 판단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인가: 먼저 주제에 관심을 갖고 예비조사로 탐구 방향을 정해야 정보를 탐색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해석해야 그 결과를 전달하고 전체 과정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예비조사 → 감상'의 선후가 바뀌었다. 감상이 출발점이고 그다음에 예비조사가 이루어진다. 올바르게는 '감상 → 예비조사 → 탐색 → 해석 → 커뮤니케이션 → 평가'이다.

② O — '감상 → 예비조사 → 탐색 → 해석 → 커뮤니케이션 → 평가'로 여섯 단계가 정확히 배열되어 있다.

③ X — '예비조사 → 탐색 → 감상'이 잘못되었다. 감상은 예비조사와 탐색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첫 단계이다. 올바르게는 '감상 → 예비조사 → 탐색 → 해석 → 커뮤니케이션 → 평가'이다.

④ X — '감상 → 탐색 → 예비조사'가 잘못되었다. 탐색에 앞서 예비조사로 배경 정보를 살피고 탐구 방향을 구체화한다. 올바르게는 '감상 → 예비조사 → 탐색 → 해석 → 커뮤니케이션 → 평가'이다.

오답 포인트

감상·예비조사·탐색의 앞부분 세 단계를 서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핵심 함정이다. 감상은 탐구의 출발점이고, 예비조사는 탐색의 방향을 잡는 준비 단계이므로 탐색보다 앞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차형 선지는 '관심 형성 → 방향 설정 → 정보 수집 → 의미 구성 → 결과 전달 → 과정 평가'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특히 감상이 첫 단계이고 예비조사가 탐색보다 앞선다는 선후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감-예-탐-해-커-평: 감상하고 예비조사한 뒤 탐색·해석하고, 커뮤니케이션한 뒤 평가한다.

NoteBase

23. 다음 중 Big6 Skills 모형과 Bloom의 인지적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제 정의, 정보요구 확인 - 분석
② 적합한 정보원의 선택 - 평가
③ 정보의 재구조화 및 커뮤니케이션 - 종합
④ 정보과제와 정보원의 관계 설명 - 지식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Big6 Skills 모형의 정보문제 해결 활동을 Bloom의 인지적 수준인 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와 바르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Big6 Skills 모형은 정보문제를 과제 정의, 정보탐색 전략, 소재 파악과 접근, 정보 이용, 종합, 평가의 과정으로 해결하는 모형이다. Bloom의 인지적 수준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지식, 적절한 정보원을 가려 선택하는 것은 이해, 과제와 정보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분석, 정보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것은 종합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과제를 정의하고 정보요구를 확인하는 활동을 '분석'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활동이므로 '지식' 수준에 해당한다.
② X — 적합한 정보원을 선택하는 활동을 '평가'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정보원의 성격과 적합성을 파악하여 선택하는 '이해' 수준에 해당한다.
③ O — 수집한 정보를 재구조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활동은 여러 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종합' 수준에 해당한다.
④ X — 정보과제와 정보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활동을 '지식'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과제와 정보원 사이의 관련성을 분해하고 연결하여 파악하는 '분석' 수준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지식'과 '분석'을 서로 바꾸어 놓았고, ②는 정보원을 선택한다는 표현 때문에 최종 단계인 '평가'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인지 수준은 동사의 일상적 느낌이 아니라 실제 사고 활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활동의 핵심 동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필요한 것을 확인하면 지식, 적합성을 파악해 선택하면 이해, 관계를 나누어 설명하면 분석, 정보를 결합해 새 결과물로 표현하면 종합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확인은 지식, 선택은 이해, 관계 설명은 분석, 재구성과 커뮤니케이션은 종합이다.

NoteBase

24. 다음 중 참고질문의 유형과 이용자 질문의 예시를 모두 고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지시형: 어린이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 나. 즉답형: 국가기록원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 다. 조사형: 태양 노출이 피부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 라. 연구형: 도서관의 전자책을 보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까?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참고질문을 답변에 필요한 탐색의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지시형·즉답형·조사형·연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시형은 자료의 위치나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질문이고, 즉답형은 간단한 사실이나 기관 정보를 짧게 확인하면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조사형은 탐색 전략과 여러 정보원의 검토가 필요한 질문이며, 연구형은 특정 주제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문헌조사가 필요한 질문이다. 탐색 부담은 대체로 지시형·즉답형보다 조사형·연구형에서 크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의 '어린이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는 자료 위치를 안내하는 지시형 질문이고, 나의 '국가기록원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는 하나의 단순 사실을 확인하는 즉답형 질문이다. 따라서 가와 나를 모두 고른 ①이 옳다.
② X — 가는 지시형이 맞지만, 다를 조사형으로 분류한 부분이 틀렸다. 다는 태양 노출과 피부암의 관계에 관한 최근 연구를 폭넓게 찾아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연구형 질문이다.
③ X — 나는 즉답형이 맞지만, 다를 조사형으로 분류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다가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요구하는 연구형 질문이다.
④ X — 나는 즉답형이 맞지만, 라를 연구형으로 분류한 부분이 틀렸다. 라는 전자책 이용에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한지라는 단순한 이용 사실을 확인하면 되므로 올바르게는 즉답형 질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다에 '연구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질문 유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위해 얼마나 넓고 깊게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다는 최근 연구 전반을 요구하므로 연구형이고, 라는 소프트웨어 설치 필요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연구형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치·이용 안내이면 지시형, 한두 가지 단순 사실 확인이면 즉답형, 탐색 전략을 세워 여러 자료를 찾아야 하면 조사형, 주제 전반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하면 연구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위치 안내는 지시형, 단순 사실은 즉답형, 여러 자료 탐색은 조사형, 광범위한 심층조사는 연구형이다.

NoteBase

25. 문화(Culture) + 큐레이팅(Curating)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합성어로 '문화정보를 안내(큐레이팅)하는 인공지능'과 '문화정보를 안내(큐레이팅)하는 아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한 용어로 적절한 것은?
① 디지택트 ② 챗GPT
③ 큐아이 ④ 확장현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화정보를 안내·큐레이팅하는 인공지능을 뜻하면서 '문화정보를 안내하는 아이'라는 중의적 의미도 지닌 합성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큐아이: 문화(Culture), 큐레이팅(Curating), 인공지능(AI)의 의미를 결합한 용어로, 문화정보를 큐레이팅하는 인공지능을 뜻한다. 동시에 '아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문화정보를 안내하는 아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나타낸다. 디지택트는 디지털 방식의 접촉, 챗GPT는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 확장현실은 현실과 가상환경을 결합·확장하는 기술을 가리키므로 제시된 합성어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디지택트'는 디지털(Digital)과 콘택트(Contact)를 결합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접촉을 나타내는 말이다. 제시된 정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디지털 방식의 접촉을 뜻한다.
② X — '챗GPT'는 이용자의 입력에 대화 형식으로 응답하는 생성 인공지능이다. 문화·큐레이팅·AI의 합성어라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을 가리킨다.
③ O — '큐아이'는 문화정보를 큐레이팅하는 인공지능을 나타내며, '문화정보를 안내하는 아이'라는 중의적 의미까지 담으므로 문제의 설명과 일치한다.
④ X — '확장현실'은 가상현실·증강현실·혼합현실 등을 포괄하여 현실과 가상환경을 확장하는 기술 개념이다. 제시된 문화정보 안내 AI의 명칭이라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현실과 가상환경을 결합·확장하는 기술을 뜻한다.

오답 포인트

'인공지능'이라는 표현만 보고 널리 알려진 챗GPT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적 단서는 문화, 큐레이팅, AI의 결합과 '안내하는 아이'라는 중의적 표현이며,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큐아이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조어의 구성 요소와 추가로 제시된 언어적 단서를 각각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문화정보 큐레이팅 AI라는 기능과 '아이'라는 중의성이 동시에 맞는 용어를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문화 큐레이팅 AI + 안내하는 아이 = 큐아이이다.

NoteBase